

## 상처와 타락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연인들과 노숙자가 뒤섞여 있는 곳, 대학로에서였다. 술기운이 올라 동행을 잃고 나무 아래 누워 잎사귀들을 보고 있었다. 초록이 지친다는 미당의 시구절이 떠올랐다. 나무들은 초록의 절정을 향해 저렇게 서 있지만 절정의 순간에 도달한 순간 지쳐가는 것이다. 삶도 그러한 것 같다. 욕망과 꿈을 향해 질주를 거듭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욕망과 꿈에 지쳐간다.

벌써 가을의 입구가 성큼 다가와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놀라운 풍경과 만나게 되었다. 술에 부대껴 몸을 뒤척이다가 도둑고양이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는 야외공연장의 난간에 숨죽이며 무언가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앞쪽 10미터쯤 떨어진 부근에 다리를 다친 비둘기가 비척거리고 있었다. 비둘기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실체를. 도둑고양이는 사자를 연상시켰다. 먹이가 허점을 보일 때까지 밀림에서 꼼짝않고 엎드려 있는 사자와 같이 비둘기의 동작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미풍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수풀이 사자의 콧잔등을 건드리고 있는 환각이 들 정도였다. 비둘기는 자신과 도둑고양이의 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비척거리기 뿐 달아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도둑고양이는 사자처럼 번쩍 난간을 뛰어넘어 허공을 밟는 듯 달려가더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비둘기의 목을 제압해버렸다. 날개 달린 짐승이 푸드덕거리며 허공에 반쯤 떠올랐지만 이미 도둑고양이는 그 허공마저 제압해버린 상태였다.

도둑고양이는 비둘기를 물고 유유히 야외공연장

을 빠져나갔다. 나는 놀라움에 가득 차 벤취에서 벌떡 일어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초록에 지쳐가는 잎사귀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대학로의 밤, 그러나 그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도둑고양이는 십분도 안 되어 다시 야외공연장의 난간에 나타났다. 그는 습관적으로 비둘기를 잡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과 분노가 겹쳐 도둑고양이를 향해 비척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와 거리가 10미터쯤 좁혀졌을 때 나는 공포에 질려버렸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고양이의 눈가에 날카로운 칼날이 굵고 간 흔적이 뚜렷했을 뿐만 아니라 몽톡하게 꼬리가 잘려 있었던 것이다. 꼬리는 너무나 짧게 절단돼 손톱이 엉덩이에 달려 있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지경이었다.

인간에 의해 영혼과 몸이 훼손된 도둑고양이는 그 상처를 잊기 위해 습관적으로 비둘기를 사냥하고 있는 것이었다. 눈에 가득한 적의에 얼어붙어 꿈쩍없이 도둑고양이의 사냥감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눈을 내리깔고 뒤돌아서 벤취에 앉아 목에 서늘하게 흐르는 땀을 훔치며 도둑고양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예의 그 자세로 돌아가 야외공연장의 난간에 몸을 숨기고 또다른 비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지만 도둑고양이에 대한 영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 사는 일도, 도둑고양이도, 그의 사냥감인 비둘기도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폭력은 우리 주변에 미만해 있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자기 자신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시칭하듯 나와는 상관없는 또다른 세계로 폭력을 인식

하며 산다.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이 폭력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방식 중 하나이다.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보다는 적당히 서로에게 가해질 폭력을 교환해 서로 이득을 취해보자는 알박한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태도는 어찌면 도둑고양이보다 더 자신을 내팽개치고 사는 행위는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대학로의 도둑고양이는 자신의 상처를 잊기 위해 끊임없이 사냥을 한다. 자신의 영혼이 훼손되었다는 자각을 습관적인 사냥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잃어버린 내면을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줄 방법은 없을까. 나는 절망하여 비칠거리며 패배를 인정하고서 그에게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인간의 부패는 도둑고양이의 타락에 비하면 더 비본성적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선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자와 적당히 타협하는 행위는 배타심에 지나지 않는다. 온전한 자기성찰이란 현재의 무수한 '사이'를 통찰하고 자각하는데서 나온다.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의 다음 구절은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사랑은 '나'에 집착하여 '너'를 단지 '내용'이라든가 대상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곧 그의 존재를 기울여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비록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향수하고, 표현하는 감정을 사랑에 돌린다 하여도 그는 사랑을 모른다. 사랑이란 하나의 우주적인 작용이다...(중략)...사랑이란 한 사람의

'너'에 대한 한 사람의 '나'의 책임이다. 이 점에 어떤 감정도 있을 수 없는 것, 곧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한결같은 것이다."

이 현란한 도시에서 한결같은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른다. 부패는 이 한결같음을 무시하고 적당히 타협하자고 하는데서 나온다. 사소한 이유로 손지를 주든 끼리끼리 작당하는 정치가들의 행태든, 거기에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보는 비본성적인 폭력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 폭력은 자신의 상처로 가득한 내면을 복구하기 위해 오늘밤도 사냥을 나가는 저 대학로의 도둑고양이에 비하면 더 비열하고 협잡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랑을 깨닫게 되면 초록에 지쳐 단풍드는 것이 욕망과 협잡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희생임을 아는 밤이 온다. 단풍은 땅에 떨어져 흩어지고 기나긴 어둠을 지나 초록으로 다시 움튼다. 사랑은 온몸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온몸으로 남이 된다. 한결같은의 뿌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아직 사랑을 모르는 나는 대학로에서 도망쳐 빈방에 누워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할 뿐인 것이다.



박형준

약력  
1966년 전북 정읍출생. 199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으로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련다』, 『행냄새를 풍기는 겨울』, 『물속까지 잎사귀가 피어 있다』가 있다. 동서문학상 수상